

II-2. 자가 치아 이식(Tooth autotransplantation)

김용건, 엄응식, 장범석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과 치료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연치를 보호하고 치아 상실을 최대한으로 막는 데 있다. 그러나 깊은 치아우식이나 심한 치주질환 또는 치아파절이 존재하여 발거해야 하는 경우 자가 치아 이식술이 하나의 치료방법으로 고려된다. 자가 치아 이식술이란 자신의 치아를 같은 구강 내에서 다른 부위로 재이식하는 술식을 말한다. 이것은 외과적 정직(surgical up-righting), 외과적 정출(surgical extrusion), 의도적 재식술(intentional replantation), 무치악 부위로의 이식을 포함한다.

자가 치아 이식술은 고정성 부분의치와 비교시 인접치의 손상이 없으며 임플란트에 비해 치주인대를 보존가능하며 치료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에 자가 치아 이식 후 부착의 부분적 상실, 치조골의 결손지속 및 치유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Andreasen 등은 14%의 비율에서 치근흡수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식치아에 매복치아가 사용되거나 수용측이 흡수된 무치악 전정부에서 시행될 경우 이식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진행된 우식, 치아 파절, 진행된 치주염, crack tooth 등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를 발거한 후 제 3대구치를 이식한 경우와 하악 소구치의 외과적 정직(surgical up-righting)을 한 경우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양상 및 그 예후를 보고하는 바이다.